

부모·자녀건강학회지 논문분석 (창간호-2009)

박혜숙¹·오진아²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¹,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건강과학연구소²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998-2009)

Park, Hye Sook¹ · Oh, Jina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 Institute for Health Science Research, Inj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classify the major subjects and theme and to analyze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 in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of the Academic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 since 1998. **Methods:** A total 152 studies published from the first edition to volume 12, number 2 were reviewed using structured analysis criteria developed by researchers; research type, research design, research subjects, research them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 Research theme was founded 4 nursing domain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 of papers were limited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es. **Results:** One hundred papers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79.0% used survey design. Most of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 in quantitative research were self-reported questionnaire (69.4%) and parametric statistics respectively. The research subjects of sixty three papers were parent with well or child. The common domain studies was human related concepts such as raring.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ublished studies have been improved and diversified, however, detailed and clear evaluation tool that assess study process and method should be developed as a way to further improve the quality of published papers in the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Key Words: Publications, Nursing research, Research design, Research methodolog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부모·자녀 간호학 분야에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중재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일익을 담당하고자 1995년 부모·자녀건강연구회(The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가 발족되어, 1996년 12월에 부모·자녀건강학술연구지(Parent-Child Health Journal)를 발간한 바 있다(Ha, 1996). 이후 회원들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 가운데 부모·자녀건강연구회가 성장하여 부모·자

녀건강학회(The Academic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로 그 조직이 발전됨에 따라(Ha, 1998), 부모·자녀건강학술지는 1998년 12월 부모·자녀건강학회지(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로 명칭을 바꾸고 창간호를 발간하여, 2010년 12월 현재 제13권 2호가 발간되었다.

한 분과 학문의 발달은 그 학문의 지식체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Shin et al., 2010). 이에 부모·자녀 간호학 분야에서는 부모·자녀의 건강을 위해 새로운 지식체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지식체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지식체의 생성 방향을 조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Suh et al., 2007).

주요어: 부모·자녀건강학회지, 논문분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Oh, Jina,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Inje University, Gaegum 2-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33, E-mail: ohjina@inje.ac.kr

투고일: 2011년 3월 21일 / 심사완료일: 2011년 5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일

최근 국내·외적으로 전문학술지의 질적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Bang et al., 2008). 지금까지 간호학계의 다양한 학회지에서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게재논문에 대한 분석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Bang et al., 2008; Kim et al., 2010; Shin et al., 2010; Suh et al., 2007). 그러나 아직 부모·자녀건강학회지는 수록된 연구논문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시도한 적이 없으므로, 본 학회지의 자체 평가를 처음 시도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대학마다 교원평가가 강화되면서 교수들은 논문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Kim et al., 2010), 교수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 등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창간호부터 2009년 12월에 발간된 제12권 2호까지 게재된 총 15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 연구유형과 연구설계,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등의 연구방법론과 연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부모-자녀 건강 및 간호연구의 발달과 아울러 현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자녀건강학회지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립해나가고 질적인 논문의 보급과 부모-자녀 건강 관련 연구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창간호부터 제12권 2호까지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향후 학회지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게재논문의 연구대상을 분석한다.
- 게재논문의 연구유형과 연구방법론을 분석한다.
- 게재논문의 주제를 간호의 주 영역에 따라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자녀건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대상, 연구유형, 연구방법론 및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틀에 따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부모·자녀건강학회지는 부모·자녀건강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창간호와 제2권은 연1회, 제3권부터는 연2회 발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창간호부터 2009년 12월(제12권 2호)까지 게재된 총 논문 152편이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분석 틀 중 연구유형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틀은 논문분석연구를 수행한 선행문헌(Shin et al., 2010; Suh et al., 2007)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게재논문의 연구대상자를 부모, 아동, 부모-자녀, 전문가,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유형은 일반논문, 학위논문, 연구비 수혜논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종설연구,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의 경우 연구설계는 서술적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로 구분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 관찰법, 면접법과 생리적 측정법, 기타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분석에 활용한 통계기법을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의 경우는 현상학적, 근거이론적, 문화기술지적 연구와 내용분석, 개념분석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제는 간호의 주 영역인 인간, 건강, 간호, 환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기간 및 방법

자료분석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개발한 분석틀에 따라 연구자가 각자 152편의 논문을 일차분석하였다. 그 후 두 연구자가 함께 일차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연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재분석과 수정을 하여 분석을 완성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분석

연구대상자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수는 한 연구에서 두 유형의 대상자에게 연구한 경우가 있어 복수 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부모 63건(38.9%), 아동 27건(16.6%), 부

Table 1. Subjects of Research

(N=152)

| Categories | Subjects | n (%) | Detailed subjects |
|--------------------|------------------------|-----------|--|
| Parent | Pregnant women | 16 (9.9) | Pregnant woman (8), primigravida (3), para gravida (2), high-risk pregnant women (2), unmarried mother |
| | Mother with well child | 20 (12.3) | Infant (14), preschool (4), toddler, all |
| | Mother with ill child | 19 (11.7) | Infant (8), all (6), toddler (2), school (2), preschool, |
| | Father with well child | 2 (1.2) | Infant, preschool |
| | Parent with well child | 3 (1.9) | Toddler (2), preschool |
| | Parent with ill child | 3 (1.9) | All (3) |
| | Subtotal | 63 (38.9) | |
| Child | High-risk neonate | 2 (1.2) | |
| | Infant | 8 (4.9) | |
| | Preschool | 1 (0.6) | |
| | School | 6 (3.7) | |
| | Ill child | 3 (1.9) | With cancer, hospitalized, under operation |
| | Adolescent | 7 (4.3) | High school (6), middle school |
| | Subtotal | 27 (16.6) | |
| Parent-child | Mother and child | 9 (5.6) | Infant (8), school |
| | Parent and child | 1 (0.6) | Adolescence |
| | Subtotal | 10 (6.2) | |
| Health profession | Nurses | 1 (0.6) | |
| | Midwife | 2 (1.2) | |
| | Daycare teacher | 2 (1.2) | |
| | Nurse-child | 1 (0.6) | Nurse-infant |
| | Subtotal | 6 (3.6) | |
| Others | Grandmother | 1 (0.6) | Caring infant |
| | Women | 3 (1.9) | Obesity, immigrant, woman |
| | University students | 9 (5.6) | Students (6), woman (3) |
| | Institution | 2 (1.2) | Nursery, day-care center |
| | Literature | 39 (24.1) | Literature (37), meta-analysis (2) |
| | Web site | 2 (1.2) | Child care web site (2) |
| | Subtotal | 56 (34.6) | |
| Total [†] | | 162 | |

[†] Multiple choice.

모-자녀 10건(6.2%), 건강전문인 6건(3.7%) 순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건강한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0건(12.3%), 아픈 자녀가 있는 어머니 대상 논문이 19건(11.7%), 임신부 대상 논문이 16건(9.9%)이었다.

기타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논문 1건(0.6%),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 3건(1.9%), 대학생 대상 논문 9건(5.6%)이 있었으며, 문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39건(24.1%), 기관 대상 논문 2건(1.2%), 인터넷 웹사이트 대상 논문이 2건(1.2%) 있었다.

2. 연구유형과 연구방법론 분석

1) 연구유형

연구유형은 일반 논문이 127편(83.6%)으로 대부분이었

으며, 연구비 수혜 논문이 14편(9.2%), 학위논문이 11편(7.2%)이었다(Table 2).

2) 연구방법론 분석

연구는 양적 연구가 100편(65.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종설 연구가 36편(23.6%), 질적 연구 8편(5.3%), 기타 8편(5.3%) 순이었다(Table 3). 기타에는 트라이앵글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포함되었다.

양적 연구에서 연구설계의 대부분이 서술적 조사연구설계(79편, 79.0%)이었고, 실험연구설계는 21편(21.0%)이었다. 양적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이 86건(6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관찰법 17건(13.6%), 면접법과 생리적 측정법이 각각 8건(6.5%)이었다. 양적 연구에서 자료분석에 사용한 통계기법은 개별 논문마다 다양한 통계기법이 사용되었으므로, 각 통계기법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였다.

기술통계가 100건(32.4%), t-test가 67건(21.7%), ANOVA와 ANCOVA 분석이 50건(16.2%), 상관분석이 48건(15.5%), χ^2 분석이 27건(8.7%)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회귀분석(7건, 2.3%), 비모수 검정(6건, 1.9%), 요인분석(4건, 1.3%)은 비교적 활용도가 낮았다.

질적 연구의 경우는 현상학적, 내용분석, 개념분석 연구

가 각각 2편, 근거이론적, 문화기술지적 연구 논문이 각각 1편으로 매우 적었다.

3. 연구주제 분석

분석대상 논문 총 152편의 연구주제 171개 중에서 간호학의 주요 관심 영역인 인간, 건강, 간호, 환경의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분류한 결과, 인간(45.6%) 관련 주제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건강 23.9%, 간호 21.8%, 그리고 환경 8.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인간 관련 연구주제를 다룬 논문은 양육이 27편(1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장발달 23편(13.4%), 부모-자녀관계(16편, 9.4%), 성 관련(11편, 6.4%), 가족(1편, 0.6%) 순이

Table 2. Types of Research (N=152)

| Types | n (%) |
|------------------------|-------------|
| General research | 127 (83.6) |
| Thesis or dissertation | 11 (7.2) |
| Funded research | 14 (9.2) |
| Total | 152 (100.0) |

Table 3. Research Methodology (N=152)

| Categories | Characteristics | n (%) |
|--|-------------------------|-------------|
| Research method | Quantitative research | 100 (65.8) |
| | Qualitative research | 8 (5.3) |
| | Literature review | 36 (23.6) |
| | Others | 8 (5.3) |
| | Total | 152 (100.0) |
| Quantitative Research (n=100) | Research design | |
| | Descriptive survey | 79 (79.0) |
| | Experimental design | 21 (21.0) |
| | Subtotal | 100 (100.0) |
| | Data collection | |
| | Questionnaire | 86 (69.4) |
| | Observation | 17 (13.6) |
| | Interview | 8 (6.5) |
| | Physiologic measure | 8 (6.5) |
| | Others | 5 (4.0) |
| | Subtotal † | 124 (100.0) |
| | Data analysis | |
| | Descriptive statistics | 100 (32.4) |
| | t-test, paired t-test | 67 (21.7) |
| | ANOVA, ANCOVA | 50 (16.2) |
| | Chi-square | 27 (8.7) |
| | Pearson's correlation | 48 (15.5) |
| Multiple regression | 7 (2.3) | |
| Factor analysis | 4 (1.3) | |
| Non-parametric test (Mann-Whitney U-test, Fisher' exact, Wilcoxon) | 6 (1.9) | |
| Subtotal † | 309 (100.0) | |
| Qualitative research (n=8) | Research method | |
| | Phenomenological method | 2 (25.0) |
| | Grounded theory | 1 (12.5) |
| | Ethnography | 1 (12.5) |
| | Content analysis | 2 (25.0) |
| | Concept analysis | 2 (25.0) |
| Subtotal | 8 (100.0) | |

† Multiple choice.

었다. 건강 관련 연구 주제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각각 10편(5.8%), 질병(9편, 5.3%), 건강사정(5편, 2.9%), 영양(4편, 2.3%), 임신과 출산(2편, 1.2%), 삶의 질(1편, 0.6%) 순이었다. 간호 관련 연구 주제는 간호중재(16편, 9.4%)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14편, 8.2%), 신생아 간호(5편, 2.9%), 분만간호(2편, 1.2%) 순이었다. 환경 관련 연구주제는 기관 6편(3.5%), 정책 5편(2.9%), 인터넷 관련 주제는 4편(2.3%)에서 다루어졌다.

논 의

1998년 창간호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부모·자녀건강학회지에 게재된 152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부모·자녀건강의 주제와 연구경향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학회지가 타 학회지와 차별화되어 추구할 연구영역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12년간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152편으로, 창간호부터 2009년도까지 출판된 총 22권의 학회지 1권당 평균 게재논문 수는 6.9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대한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등 다른 학술지에 권당 10편 이상의 연구논문이 게재되는 논문 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게재된 연구논문의 유형은 일반 논문이 127편(83.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구비 수혜 논문은 14편(9.2%)에 불과하여 대한간호학회지(31%), 기본간호학회지(30%), 여성건강간호학회지(27%), 정신간호학회지(25%), 한국간호교육학회지(33%)보다 낮았다(Bang et al., 2008; Kim, Park, Park, Chung, & Ahn, 2007; Lee et al., 2007; Sohng et al., 2008; Suh et al., 2007). 최근 교수의 연구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교수연구업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간호학자들의 논문이 외국학회지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게재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아닌 본 학회지는 상대적으로 논문투고 사례가 적으며 이는 학회지의 양적 성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는 부모, 자녀, 부모-자녀로 나타나 확실하게 다른 학회지와 차별화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고유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이들 중 건강한 자녀를 둔 어머니나 아픈 자녀를 둔 어머니 혹은 태아를 잉태한 임신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한 자녀

를 둔 아버지 혹은 건강하거나 아픈 자녀를 둔 부모,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신생아기부터 사춘기까지의 건강한 아동과 환자 대상 연구가 많았다. 또한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 조산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 보고되었고,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1편 보고되었다. 기타 연구대상자로는 문헌이 많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부모·자녀건강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종설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가 대부분(100편, 65.8%)으로, 이는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88.3% (Kim et al., 2007), 대한간호학회지의 84.7% (Shin et al., 2010)와 한국간호교육학회지의 84.8% (Bang et al., 2008) 보다 낮은 편이다. 이는 초창기에 발간된 부모·자녀건강학회지에는 문헌고찰인 종설 연구가 다수(36편, 23.6%) 포함된 결과로 여겨진다. 1998년 부모·자녀건강학회가 발족한 이래, 연구자들은 부모-자녀에 관한 다학제적으로 수많은 문헌을 고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아버지의 영아 돌봄, 모-태아 상호작용,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부모교육, 미숙아와 저체중출생아의 추후관리, 영유아의 성장발달사정 등 다양한 종설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부모자녀건강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을 위한 다문화 간호 관련 종설연구를 선구적으로 시도하여 부모·자녀건강의 학문적 폭을 넓히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종설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이유로 사료된다. 본 학회지는 현상학적, 근거이론적, 문화기술지적 연구와 내용분석, 개념분석 연구 등 질적 연구와 트라이앵글 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소개되고는 있으나 그 수가 16편으로 양적 연구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게재 연구논문의 연구목적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연구설계는 대부분이 서술적 조사연구설계(79편, 79.0%)로 나타났으나 실험연구설계도 21편(21.0%)으로 게재 논문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간호연구에서 간호중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부모·자녀건강을 증진하는 간호중재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종설연구는 지양하고 실험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이 86건(6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다른 학술지들(Bang et al., 2008; Kim,

Table 4. Theme of Research

(N=152)

| Paradigm (n) | Theme | n (%) | Detailed theme |
|--------------------|---------------------------|-----------|--|
| Human | Raring | 27 (15.8) | Raring attitude (6), raring stress (6), raring efficacy and confidence (5), mothering (4), fathering (3), parenting, raring burden, child care |
| | Growth and development | 23 (13.4) | Infant sleep/activity (8), infant Growth & development (7), child temper (5), infant behavior (2), aniagram |
| | Parent-child relationship | 16 (9.4) | Mother-fetus interaction (7), parent-child interaction (6), mother-infant interaction (2), father-infant attachment |
| | Sexual related | 11 (6.4) | Sex education (3), sexual attitude (2), sex role, sexual health, contraception, sexual behavior, sexual knowledge, nocturnal emission |
| | Family | 1 (0.6) | Family adaptation |
| | Subtotal | 78 (45.6) | |
| Health | Promotion | 10 (5.8) | Health promotion behavior (4), self-care, exercise, smoking, danjeon breathing, yangsaeng, oral care |
| | Prevention | 10 (5.8) | Stress & coping (4), safety (2), child abuse, infectious disease, prenatal care, suicide tendency |
| | Disease | 9 (5.3) | Maternal depression (3), internet addiction (2), Sanhupung, fever, uncertainty, obesity |
| | Assessment | 5 (2.9) | Menstruation, pain assess, multicultural family, health status, poverty |
| | Nutrition | 4 (2.3) | Breast feeding (4) |
| | Pregnant and delivery | 2 (1.2) | Delivery type, pregnant experience |
| | Quality of life | 1 (0.6) | Quality of life |
| | Subtotal | 41 (23.9) | |
| Nursing | Intervention | 16 (9.4) | Infant massage (4), play therapy (3), interaction facilitation, breast feeding facilitation, NNS, nesting, empowerment, pain control, analgesics, nursing demand |
| | Education | 14 (8.2) | Parent education (5), health education (5), education need (3), AIDS education |
| | Neonatal care | 5 (2.9) | Nursing activity (2), nurse-infant interaction, home visiting care, follow-up care |
| | Delivery care | 2 (1.2) | Midwife's care, fatigue |
| | Subtotal | 37 (21.8) | |
| Environment | Institution | 6 (3.5) | Day-care center (3), after school, curriculum, nursery |
| | Policy | 5 (2.9) | Mother-child health service and policy (3), midwife' education policy (2) |
| | Internet | 4 (2.3) | Child care website (3), information system |
| | Subtotal | 15 (8.7) | |
| Total [†] | 171 (100.0) | | |

[†] Multiple choice.

et al., 2007, Kim et al., 2010; Shin et al., 2010; Suh et al., 2007)과 일치하는 것이나, 관찰법이 17건(13.7%)으로 보고된 것은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3.5% (Kim et al., 2007), 한국간호교육학회지의 2.8% (Bang et al., 2008)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이는 본 학회에 게재된 논문의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즉,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연구에서 참여 혹은 비참여 관찰법에 의한 자료수집이 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아직 말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할 수 없는 영유아 대상의 연구에도 관찰법이 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관찰법이 신뢰성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훈련된 연구자가 자료수집을 해야 하며, 연구자 간의 관찰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문에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찰법 활용 논문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한 관찰자 준비과정과 연구자 간의 관찰 오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연구논문에서 서술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적 연구에서 자료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다양하였다. 기술통계(32.4%)와 t-test, ANOVA, ANCOVA 같은 평균비교(37.9%)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기본간호학회지(기술통계 28%, 평균비교 37%), 여성건강간호학회지(기술통계 22%, 평균비교 38%), 한국간호교육학회지(기술통계 31%, 평균비교 38%)와 비교해 볼 때 기술통계 사용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 비교는 유사한 결과이다(Bang et al., 2008; Kim et al., 2007; Sohng et al., 2008). 기타 상관분석(15.5%), χ^2 -test(8.7%), 회귀분석(2.3%), 요인분석(1.3%), 비모수 검정(1.9%)의 사용률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본 학회지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이 비교적 기초 통계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며, 통계의 다양성도 부족함을 보여 준다. 통계기법은 연구목적에 따라 사용종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같은 기초적인 통계자료는 요약, 정리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연구목적에 따라 추론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는 데 보다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간호메타패러다임에 따른 연구주제 분석 결과, 본 학회지는 인간영역에 대한 연구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건강영역을 가장 비중 높게 보고한 대한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그리고 한국간호교육학회지와 다른 결과이다(Bang et al., 2008; Kim et al., 2010; Lee et al., 2007; Shin et al., 2010; Sohng et al., 2008; Suh et al., 2007). 연구결과 본 학회지는 다른 학회지와 달리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자

녀양육, 그리고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주제를 주로 다루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신생아 성장발달에 따른 정상적인 수면과 행동패턴, 영아 기질에 따른 양육태도와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역할과 더불어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와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과 자신감, 양육 부담감 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모-태아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아버지-신생아 애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부모·자녀건강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성역할, 성교육, 피임, 성적 태도, 성행동, 성지식, 몽정과 같은 성 관련 주제와 가족적응과 같은 연구 주제를 다루어 성 건강과 가족건강 도모에 기여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다룬 연구영역은 건강영역이다. 건강 영역에서는 질병보다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관한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다. 건강증진에는 건강증진행위, 자가 간호, 운동, 흡연, 단전호흡, 양생, 구강간호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질병예방에는 감염성질환 예방, 산전관리, 스트레스와 대처, 자살예방, 아동학대예방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질병에는 산후풍, 발열, 모성 우울, 불확실성, 인터넷 중독, 비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건강사정에는 월경, 통증사정, 다문화 가족, 건강상태, 빈곤문제가 다루어졌다. 특히 영양에서는 모유수유가 다루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에는 분만형태와 임신경험이 주로 다루어져 건강영역에서도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간호 관련 영역은 간호중재와 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간호중재와 교육이 비슷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간호중재로는 신생아 마사지, 놀이 치료, 통증조절 등 새로운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간호실무의 수준을 높여 간호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와 아동,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 관련 영역은 영아원, 보육원과 같은 기관 환경과 조산사의 교육정책, 모자보건서비스 정책에 대해, 그리고 정보체제와 아동간호웹사이트 같은 인터넷 환경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환경에 대한 연구비중은 본 학회지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정신간호학회지(Lee et al., 2007)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회지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정신간호학에서 정신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치료적 환경을 강조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자녀건강을 위해서도 양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여겨지므로, 환

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비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간호학 분야에서 유일하게 발간되는 부모·자녀건강학회지가 명실상부한 전문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투고가 많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회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주체의 논문이 투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학자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건강에 관심있는 교육학, 유아교육학, 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인접 학문의 학자들과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져 부모·자녀건강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바이며, 본 학회지의 양적 성장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창간호부터 2009년까지 부모·자녀건강학회지에 게재된 152편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학회지가 타 학회지와 차별화되어 추구할 연구영역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논문분석결과, 본 학회지의 연구대상은 부모, 아동, 부모·자녀가 대부분으로 다른 학술지와 확실하게 차별화되었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실험설계연구도 21%를 차지하고, 다른 학회지에 비해 종설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질적 연구, 트라이앵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이 가장 많았으나 관찰법이 다른 학회지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으며, 면접법과 생리적 측정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간호메타패러다임 중 인간 관련 주제를 다룬 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건강학회지의 특성상 부모·자녀건강에 관한 연구를 주요 논문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등에서 다른 학술지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간호학 분야 및 부모자녀건강 관련 학문분야에서 학문적 성과 및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자녀건강 관련 인접 학문과의 활발한 교류를 모색하여,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종설 연구의 비중을 줄이고 부모·자녀건강증진을 위해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자녀건강을 위한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ang, K. S., Lee, S. O., Park, Y. I., Jun, M. H., Kim, H. S., Son, H. M., et al. (2008).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and their keyword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7.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2), 244-251.
- Ha, Y. S. (1996). A preface. *Parent-Child Health Journal*, 1, 1.
- Ha, Y. S. (1998). A preface.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 1.
- Kim, J. I., Park, S. M., Park, H. S., Chung, C. W., & Ahn, S. H. (2007).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and their keywor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3~2006).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3(1), 51-59.
- Kim, J. I., Lee, E. H., Kang, H. S., Oh, H. E., Lee, E. J., Jun, E. M., et al. (2010).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by keywords and research metho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7~2009).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6(3), 307-316.
- Lee, M. H., Son, J. N., Won, J. S., Jeong, M. S., Hyun, M. S., Han, K. S., et al. (2007). Trend of psychiatric nursing research by analysis of the published paper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on papers from 1992 to 200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3), 295-307.
- Shin, H. S., Hyun, M. S., Ku, M. O., Cho, M. O., Kim, S. Y., Jeong, J. S., et al. (2010).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1), 139-149.
- Sohng, K. Y., Kim, J. I., Choi, D. W., Kim, A. K., Chaung, S. K., Kim, K. H., et al. (2008).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 based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from 2001 to 2007-.*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15(3), 262- 273.
-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et al. (2007).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1013-1019.